7월부터 비닐봉투 11만톤 분리수거 실시

7월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서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연간 무려 150억장(11만톤)이 버려져 매립지의 안정화를 해치고 소각 때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1회용 비닐봉투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7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한다고 6월25일 밝혔다.

분리수거는 음식물 찌꺼기 등 이물질이 묻지 않은 깨끗한 비닐봉투만 대상으로 하며 흰색과 기타 색깔 등 2종류로 나눠 실시된다.

환경부는 분리수거된 비닐봉투를 각종 플래스틱제품으로 재활용하거나 중국 등지로 수출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기업, 자원재생공사 등을 연계한 전국적인 재활용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서울 성동구는 이전부터 분리수거제를 실시해 비닐봉투를 톤당 12만원에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어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분리수거제도에 주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Chemical Daily News 2002/06/28>